

2005년 중반기 주요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박미정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는 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을 제시한 지 1년이 흘렀다. 그간 우리의 문화예술환경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기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의 주요 골자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의 국회 상임위원 통과 무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 미술은행제도 시행,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었고, 총체적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지난 「2005년 상반기 주요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¹⁾에서 살펴본 상반기 연구보고서는 주로 2004년의 문화예술 현황 및 당해년도(혹은 전년도) 정책에 근거한 대상 연구가 많았다.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화정책대상이나 지역문화계의 두드러진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 2005년도 중반기 문화 관련 연구 보고서 현황의 경우는, 우선 시기상 그 범위를 2005년 8월 현재까지 연구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전반에 걸친 대상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단지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연구물의 정책 반영도나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현황에 따른 정책 제언

지난 6월 21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간 제도 내에서 진행되어 오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를 되짚어 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검정제도'라는 자격증으로 인해 현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인력수급 문제(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역할, 예술계 및 교육계에 미칠 영향 등)가 법안 통과와 걸림돌이 된 점은 문화예술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와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최로 진행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는 문화예술인력 정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히 주목해볼 만 하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위한 기초연구>는 문화예술교육시장에서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인력의 현황 및 현장에 맞는 객관적인 분류체계(장르, 대상, 인력, 대상 영역)에 관한 연구와 문화예술인력 정책 기반구축 및 정책 수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인력 DB 관리부터 문화예술인력 인프라 지원시스템 개편과 고용 환경 개선,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지원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문화예술진흥정책적 차원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진행 현황

문화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다수의 연구용역²⁾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와 <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 법령제정방안 연구>가 2005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완료된 상태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는 건립방향과 성격 및 기능 설정 등이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총괄센터, 아시아문화연구원, 아트플렉스, 교육문화원, 아시아 문화콘텐츠개발원, 아시아 관광콘텐츠개발원, 건축개념공간, 부대시설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립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법령제정방안 연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 목적 및 조성위원회의 설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본부 준비기구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 및 연구 방향 설정에 따라 완료된 상기의 연구 결과는 향후 종합적인 계획단계 수준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문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의 다양성

2004 문화정책백서

「문화정책백서」는 한 해 동안 문화 환경의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제작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 부서, 대학 문화예술학과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2004 문화정책백서」는 총 5장과 부록을 합해 502 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행정 혁신, 문화관

광 주요 법령과 제정, 문화정책, 예술진흥, 종교행정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각종 도표 및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04년 백서부터는 기존 문화정책백서의 범위에서 문화산업, 관광, 문화유산 분야를 제외하여 문화부 타 실국 및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백서 등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올해 발간된 「2004 문화정책백서」는 2004년에 마련된 문화정책의 기초를 바탕으로 창의한국 구현을 위한 문화정책³⁾과 창조적 다양성을 위한 예술정책⁴⁾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느 때보다 세분화된 정책 지표와 장르별 특성에 따른 정책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가정책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여가정책 제언

200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주40시간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주40시간근무제 실시 이후 나타난 라이프스타일과 여가생활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여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 여가생활

1) 「문화예술」, 2005년 5월호 참조.

2)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추진 현황 진행중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운영전략 연구 용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관련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모델 제시 용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환경조사 등 기술용역>, <아시아문화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조직혁신방안 연구 용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프로그램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 전문교육기관 설립 운영방안 연구>, <전당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용역>

완료 <문화중심도시 조성관련 법령제정방안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

3)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기본방향 설정, 문화행정 혁신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적 공간환경 정책, 융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및 개관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여가문화활성화, 사회취약계층 문화향수기회 확대 등

4)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 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지원 확대,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개성 있는 지역 문화 진흥,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여가문화조성 및 여가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균형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여가 가이드북 「여가디자인, 행복 디자인」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2004년 새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제도 개정 추진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던 건축물미술품장식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공미술과 기존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되짚어 보고 공공미술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 주체간의 참여한 갈등으로 제도를 전환시키는 과정 등 몇 가지 문제점에서 진통을 겪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는 공공미술진흥원 설립, 공공미술기금 조성, 심의제도 개선과 같은 공공미술제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공공미술제도 전환에 따른 미술의 사회적 기능 제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대구문화발전전략을 위한 발전안과 BTL사업 추진

국내 최초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한 대구광역시는 <대

구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주축이 된 문화 도시 발전상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과 예술지원체계 정비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문화자원 개발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에는 BTL⁵⁾ 선도사업이었던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투자를 통한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 건립 추진에 힘을 얻고 있다.

올 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중 개정법률'이 발표되면서 문화기반시설 설립시 직접 지원을 전제한 BTL 방식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BTL 방식에 따른 문화적 하드웨어 구축 방안은 문예진흥위원회 전환에 따른 4대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방향(전문경영체제 전환이나 독립법인화)이나 시설활용도 개선과 맞물려 문화시설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5)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란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 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원공시점에 정부에 '이전(Transfer)' 하는 대신 정부는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건설 주체인 민간으로 '임대(Lease)' 하여 민간에서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여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